

어부가 건져올린 700여년 전 해상실크로드 유물

동아시아 문화를 만나다



구름 용 무늬 항아리

국립광주박물관 '신안 해저의 보물' 특집전 6월29일까지



마늘모양 병



모란냉골 무늬 어룡 장식병



봉황 무늬 주전자

1976년 1월 신안 증도면 도덕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화병이 걸려 나왔다. 650여 년간 심해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한 어부의 발견은 국내·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바다에 수장돼 있는 유물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파도와 해풍은 물론 갑갑한 심해의 급한 해류와 싸워야만 했던 탓에 해군 소속 해저구조대요원들과 심해잠수부들이 동원됐다. 잠수부들은 하루 동안 수위 변동이 없는 30~4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유물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198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크로드에 견주어 '해양 도자기'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양의 송·원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720여 조각의 침몰선 선체, 2만2000여 점의 중국 도자기,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 28t의 중국 동전, 고려청자, 일본 도자기 등 방대한 수량과 종류의 유물이 확인됐다.

침몰선에서는 출발한 항구와 시기, 수요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함께 나왔다. 이 선박은 1323년 중국 원대(元代)에 도자기·동전 등 무역품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다 침몰한 국제무역선이었다. 선박은 최대 길이 34m, 최대 폭 11m의 약 200t급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해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도자기·금속 유물·생활용구 등 소개

14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교역상을 잘 보여주는 세계적 수중 문화유산인 신안 해저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6월 29일까지 신안 해저에서 수중 발굴된 유물 150점을 전시하는 '신안 해저의 보물' 특집전을 개최한다.

동아시아 무역 규모와 교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인 신안 해저 유물은 지난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절강성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대원범영(大元帆影)'에 209점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특집전은 그동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된 신안 해저 유물의 규모로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전시다. 주요 교역품인 도자기와 금속 유물, 그리고 다양한 재질과 용도의 생활용구들이 소개된다.

도자기는 용전요(龍泉窯) 청자를 비롯한 경덕진요(景德鎮窯) 청백자, 그리고 중국 각지의 가마에서 생산된 다양한 도자기 등이 전시된다. 또 도자기만큼 다채로운 금속 유물, 목제·유리제 유물, 선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생활용구를 포함해 당시 해양 교역의 현장과 동아시아 문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2일 문화재청 김상업위원 초청 특별강연... '風竹'전 연계

국립광주박물관은 22일 오후 2시 김상업(인천대학 겸임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을 초청해 '대나무의 상징성과 대나무 그림의 역사적 전개'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특별기획 '대숲에 부는 바람, 풍죽(風竹)'전과 연계한 강연이다.

김상업 위원은 작품 속 대나무의 상징과 의미, 변천양상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죽'전에는 대나무를 소재로 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문의 062-570-703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향, 대구 무대에 서다

오늘 靑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석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대구에서 열리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대구시민회관이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대구문화예술회관으로 재개관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21일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서곡으로 문을 열며 신예 피아니스트 벤킴이 북유럽의 청명한 기운과 민속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

그의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한다.

2006년 55회 뮌헨 ARD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 후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벤킴은 최근 바이에른 방송 오케스트라, 중독일 방송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오케스트라, 서울시향과 협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레온 플라이셔와 문용희 교수를 사사한 벤킴은 현재 베를린 음대에서 수학하고 있다. 피날레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연

벤킴

“호남기록유산 靑문화전당 콘텐츠로 활용해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2일 YMCA서 학술포럼

호남기록문화유산의 문화원형을 발굴해 내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호남기록문화유산을 상품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기록문화유산의 전당콘텐츠와 연계 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 나타난 문화원형에는 민족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구체화돼 있어 훌륭한 문화콘텐츠가 되기 충분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원형을 활용한 광주 문화콘텐츠 사업은 단발성 프로젝트의 한계, 인문학자와 문화콘텐츠 제작자의 소통 부족, 단기적 성과 발표 등으로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화콘텐츠 사업이 대부분 지역 연고에 의지하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마무리돼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붕어빵' 사업이 많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 연구원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추진과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등을 바탕으로 설화, 길, 전설, 인물 등의 문화원형을 발굴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원소스로 활용해야 한다"며 "광주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남의 시장, 정원, 정자, 인물, 종교, 신화, 음식 등은 산업디자인, 영화, 뮤지컬, 캐릭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이후를 대비해 지역문화원형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22일 오후 3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호남기록문화유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포럼에서 발표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대표 김대현)이 주최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민 연구원과 함께 김대현 전남대 교수가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4-272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가 흐르는 양림동 주민이 만든다

문화재단 '공공미술 2.0 시범사업' 선정... 주민디렉터 수강생 모집

근대역사문화 유산이 자리한 양림동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공공미술 2.0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억6000만원, 시비 8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재단은 양림동이 대표적 근대역사문화 공간임에도 그동안 '스토리가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지 못한 점에 착안, 주민 참여가 포함된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주제로 공모에 참가했다.

프로젝트는 ▲양림동의 서사와 이야기를 만드는 '양림스토리 랩(LAB)' ▲공공미술 기획이 주민 주도로 실행되는 '주민

디렉터 랩(LAB)' ▲작가 상주공간이자 작품 제작이 이뤄지는 '도글도글 공작소 랩(LAB)'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양림동 문화탐험대 운영, 양림스토리랩 구축, 사적플리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목공교실 등이다.

첫번째 사업으로 재단은 양림동 역사문화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인 광주시 남구청과 MOU를 체결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디렉터 양성과정(8주) 수강생 50여명을 모집한다. 공공미술 사례지 답사, 작품제작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670-743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글루 박주환

농심역 광동근도로

북고당 한약방 세우리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